

# 목포 목원동·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성과'

## 2013~2022년 도시재생 모니터링

목포 원도심인 목원동과 1897개항문화거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벌인 결과 폐업보다 창업이 더 많았고 점포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3~2022년을 기준으로 목원동과 1897개항문화거리 일대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측정·분석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담겼다.

목포시는 목원동 선도지역과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달 발간할 '목포시 도시재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원도심 내 주거지역과 상업지구가 함께 형성된 목원동, 1897개항문화거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들어간다.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을 벌인 목원동 선도지역 60만㎡ 일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00여건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유류시설을 활용해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육단이길' 등 관광지를 조성했다. 어울림회관과 만인계 웰컴센터, 주차장, 공원 등 주민 소통과 편의를 위한 도시재생기반 시설도 마련했다.

만호동·유달동 일원 1897개항문화거리에서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29만5000㎡ 면적에서 9개 마중물사업을 추진한다.

개항문화거리를 바탕으로 한 '개항문화관광루트'를 개발하고, 개항거리어울림 플랫폼과 청년창업 육성 공간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목원동 선도지역에는 '만인계 마을기업', 1897개항문화거리에는 '1897개항문화거리마을관리사 협력동조합', '건맥1897 협동조합', '뽕바다 협

## 목원동

2014~2017년 200억원 투입

관광지·주민 편의 시설 마련

2018~2022년 연평균 55건 창업

사업초기보다 2.5배 증가

## 1897 개항문화거리

지난해 96건 등 평균 78건 창업

사업 추진 전보다 41.85% 늘어

점포 1년 미만 생존율 소폭 하락

동조합', '남만항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목포시 도시재생센터는 공공데이터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2곳에 대한 상주인구·유동인구, 사업체 수, 매출액, 업종현황, 건축물 인허가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분석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벌인 목원동은 사업기간 연평균 창업 건수가 22건이었으나 이후 2018~2022년 평균 창업 건수는 55건으로,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평균 폐업 건수는 44건에서 4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18년까지는 한 해 창업 건수보다 폐업 건수가 더 많았지만 2019년부터 4년 연속 창업 건수가 폐업을 웃돌고 있다.

사업기간에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 닫는 점포



목포시 목원동 선도지역과 만호동·유달동 일원 1897개항문화거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역 내 창업률과 점포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목원동 선도지역의 주민거점시설인 만인계 웰컴센터. <목포시 제공>

비율이 36%에 달했지만, 사업을 마친 뒤로는 1년 미만 생존율이 22.8%로 13.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목원동에 운영되고 있는 상점은 모두 865곳으로, 소매업이 42.4%(367곳)로 가장 많고 음식점 26.5%(229곳), 생활 서비스 14.7%(127곳), 숙박 3.2%(28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9년까지는 일반음식점이 상인들의 업종 선호도 1위였지만, 이듬해부터는 통신판매업이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는 1897개항문화거리는 지난해 창업 건수가 96건에 달하며 사업 추진 기간(2018~2022년) 평균 창업이 78건에 달했다. 이는 사업 추진 전 5년간(2013~2017년) 평균 창업 건수 55건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점포의 1년 미만 생존율은 17.2%에서 14.9%로 하락했다.

지난 2017년 이후 1897개항문화거리에서 창업자 유형은 외지인 23%, 목포시민 77%로 조사됐다.

1897개항문화거리의 지난해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음식점(41.7%·345곳)과 소매업(39.7%·329곳)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생활서비스(9.1%·75곳), 숙박(7.6%·63곳) 순이었다.

김하무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번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내 근린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자료조사를 마련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무안군 낙지 포장재 지원 380여가에 아이스팩 등 10만개

무안군이 봄철 갯벌낙지 성어를 맞아 29개 어촌계 380여가에 낙지전용 포장재 8만개, 아이스팩 2만개를 공급했다. <사진>

무안군은 대표 수산물인 갯벌낙지의 명성과 상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낙지 전용 포장재를 보급하고 있다.

최근 무안군의 지속적인 낙지자원 회복사업을 통해 낙지 개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15만1000점(1점 20마리)의 낙지를 어획해 어업인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재철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무안 갯벌낙지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청정갯벌에서 자라 육질을 여리고 감칠맛이 뛰어나다"며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전용포장재를 이용한 택배 등을 통해 신선하게 즐길 수 있으니 많은 주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영화·건축·미술사... 땅끝해남서 인문학 지성들 만난다

##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인문학콘서트'

5월 25일 이창동 영화감독...9월까지 김훈 작가 등

땅끝해남으로 우리나라의 인문학 지성들이 모두 모인다.

해남군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차례, 한국 인문학계를 대표하는 명사를 초청하는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오는 5월 25일 이창동 영화감독이 해남을 찾는다. 영화의 활용경을 주제로 자신이 연출한 '박하사탕'과 '시' 등 작품을 통해 영화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축막받는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으로서도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20년 넘게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창동 감독과의 특별한 만남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황지우 시인이 대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남 출신인 황지우 시인은 최근 귀향해 고향에

서 작품활동과 함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문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시의 전성시대를 이끈 대표시인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나는 너다', '개는 속의 연꽃' 등 작품집이 있으며 현대문학상, 소설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와 총장을 지냈다.

이창동 감독 초청 인문학 콘서트는 해남동초등학교 꿈누리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누구나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땅끝순례문화관(061-530-5132)으로 하면 된다.

인문학 콘서트는 이 감독에 이어 강원도 화천 이외수 집을 건축한 조병수 건축가, 나의문화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전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한국에 최초로 마티네 콘서트를 기획한 김용배 피아니스트, '칼의 노래', '남한산성' 등의 대



이창동 감독 유홍준 전 청장 김훈 작가

표작을 둔 김훈 작가 등 명사와의 만남을 차례로 가질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영화, 건축, 미술사,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기회를 통해 인문 해남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문학 최고의 지성들과 함께하는 드문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땅끝해남에서 마련한 인문학 콘서트를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 고금도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한옥형 월 25만원·이동형 주택 월 15만원 등 6개월~1년

완도 고금도 귀농·귀어를 돕기 위해 최장 1년까지 머물 수 있는 임시 주거지가 제공된다.

완도군은 고금면 청학동길(198, 196) 일원에 조성된 '귀농·귀어의 집' 입주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완도군 귀농·귀어의 집은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귀농·귀촌 유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임시 주거지로 쓰일 예정이다.

62㎡ 규모 한옥형 1곳과 27㎡ 이동형 주택 2곳이 마련됐다. 이곳은 6개월부터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한 달 이용료(월세)는 한옥형 25만원, 이동형(원룸형) 15만원이다. 공공금은 별도 부담한다. 자세한 문의는 청학리새마을회 마을 이장



완도군 고금면 청학리에 마련된 '귀농·귀어의 집'. <완도군 제공>

(010-2684-3923)에게 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귀농·귀어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시민이 우리 군에 귀농·귀어할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